

세계 15개국 언론 관계자 참가, 국제컨퍼런스 개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자유’의 새로운 지평(The New Era of Freedom of the Press)’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세계 15개국의 언론인과 법조계, 학계, 언론 평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범죄보도와 자살보도, 재난보도 문제를 다뤘다.

제2세션에서는 ‘세계의 언론피해구제제도와 ADR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관련 제도를, 제3세션에서는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이라는 주제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국제컨퍼런스 환영 리셉션을 진행했다. 이 날 리셉션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전·현직 위원장, 국내외 언론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상세내용 8~9면 참조).



2014년도 경남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1월 27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지역 언론인 및 주요 관계기관 인사를 초청해 ‘경남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의 양상과 특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는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서도 뉴스공급 및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피해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피해 형태에 걸맞은 언론피해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언론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주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활동에서 소외된 대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액세스권’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최근 5년간 경남중재부에서 처리된 조정중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인구 대비 사건수로 보면 경남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경남중재부 중재부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남부회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정오복 경남신문 사회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